강렬한 외관·부드러운 주행…내가 알던 쏘렌토 맞아?

기아 '4세대 쏘렌토'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 시승기

세련되게 바뀐 외관에 개방감 극대화 넓은 내부 공간 눈길
한 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수평적 균형 이뤄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에 급격하게 코너 돌때도 쏠림 없어
52㎞ 주행 연비 16.1㎞/ℓ…정숙하고 안정적 주행감 만족

4세대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 강인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바뀐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와 주행성능까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기아 제공〉

"이거 내가 알던 그 녀석 맞아?"

4세대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를 마주한 첫 소감이다. 똑같은 모델이 맞는지 긴가민가할 정도로 강인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바뀐 '얼굴'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와 주행성능까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최근 3년 연속 국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중형 SUV '왕좌'를 지키고 있는 4세대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를 시승했다.

시승을 위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에서 첫 마주한 더 뉴 쏘렌토의 인상에서 '강인함'이 풍겼다. 이날 탑승한 차량은 더 뉴 쏘렌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HEV) 사륜구동(4WD) 시그니처 5인승 기본형이다. 스마트커넥트, KRELL프리미엄사운드, HUD+빌트인캠2, 선루프,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등 옵션을 갖췄으며, 가격은 5331만원이다.

우선 전면 디자인부터 확실한 변화를 줬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시그니처스타맵라이팅' 주간주행등(DRL)이 조화를 이뤘고, 후드와 범퍼가 볼륨감을 갖춰 강인한 인상을 줬다.

마치 기아 '스포티지'의 인상을 닮은 듯 하면서도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랄까. 뒤에 마련돼 있던 또 다른 시승 차량인 '시그니처 그래비티 6인승' 모델의 경우에는 기아 '모하비'의 단단한 느낌과 함께 세련된 분위기도 풍겼다.

측면부는 수직으로 배열한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네이션램프가 캐릭터 라인을 따라 이어졌고,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휠이 적용돼 단단하고 정제된 느낌이 들었다.

후면부는 두 개의 리어 콤비네이션램프를 연결하는 스타맵 그래픽이 적용됐다. 하단부 범퍼와 조화를 이루는 와이드한리어스키드 플레이트로 견고함이 느껴지는 등 전체적으로 강인함과 단단한 이미지를 갖췄다.

운전석에 들어섰다. 12.3인치 크기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개방감이 더 좋아졌다. 그 아래로는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날렵한 모양의 송풍구가 이어졌고, 그 중간 인포테인먼트와 공조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전환형 조작계가 들어서 있어 조작이 편리할 뿐더러 깔끔했다. 기아는 실내에 '경계가 없는 이어짐'(Borderless Wideness)을 주제로 수평적인 조형을 통해 높은 개방감을 연출했다고 한다.

시동을 걸고 주행에 나섰다. 목적지는 화순 도곡까지 왕복 52㎞ 구간이다. 오토랜드를 빠져나와 무진대로를 올라타고, 곧 이어 제2순환도로에 진입했다.

순환도로를 탈 때 급격한 커브를 돌아야 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차량 선회 시 제동력과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해 각 바퀴에 토크를 최적 분배하는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이 적용됐다. 덕분에 급격한 코너를 돌 때도 흔들림이나 쏠림 없는 안정적인 선회 성능을 보여줬다.

이밖에 '횡풍안정제어'도 적용됐는데, 측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에 의한 횡거동 발생 시 조향 및 제동을 제어해 차선 이탈 발생을 제어해준다고 한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룸미러다. 시동을 켜기 전까지 일반 룸미러와 다를 게 없었는데, 주행을 시작하자 '디지털 센터 미러'로 바뀌었다. 화질도 선명한 데다, 시야도 넓어져 주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이어 톨게이트를 들어설 때도 'e 하이패스'를 활용했다. 하이패스 기기와 카드가 없어도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다.

주행감 역시 기존 모델보다 향상됐다는 게 느껴졌다. 서행할 때와 고속으로 주행할 때 모두 묵직하면서도 잘나갔다. 고속 주행에서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정숙성도 돋보였다.

이번 상품성 개선 모델에는 빌트인 캠2이 적용돼 전·후방의 QHD급 고화질 영상과 음성을 모두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커넥트 앱과 무선으로 연결해 영상을 바로 확인하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비 역시 뛰어났다. 시승을 마친 뒤 확인한 연비는 16.1㎞/ℓ였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복합연비 15.7㎞/ℓ보다 높았다.

전반적인 디자인에서는 이전보다 확실히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이 강조됐으나, 막상 주행을 해보면 강인함 뒤에 섬세함과 부드러움까지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더 뉴 쏘렌토는 2.5 가솔린 터보, 2.2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가지 파워트레인과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트림, 시그니처 기반의 디자인 특화 트림 그래비티로 운영된다. 트림별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3506원~4193만원 ▲2.2 디젤 3679원~4366만원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4WD 4161만~4831만원 ▲하이브리드 2WD 3786만~4455만원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더 뉴 쏘렌토 내부 인테리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한 파노라믹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개방감이 확대됐다. 〈기아 제공〉

아이오닉 6 '1주년 기념 패키지' 가성비 극대화

현대차, 연식 변경 모델 판매 돌입
트림별 선호도 높은 품목들 묶어

현대차가 최근 출시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연식 변경 모델 '2024 아이오닉 6'.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연식 변경 모델 '2024 아이오닉 6'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 아이오닉 6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하고 신규 패키지를 운영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엔트리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레인센서 ▲전자식 룸미러(ECM)를 기본 적용했다.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BOSE 프리미엄 사운드를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 아이오닉 6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트림 별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두 선택 품목을 한데 묶은 '1주년 기념 패키지'를 경제적인 가격에 도입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극대화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1주년 기념 패키지 I'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2(HDA2)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센스'와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 편의 사양으로 구성된 '컨비니언스' 옵션을 통합했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1주년 기념 패키지 II'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2 등 주차 편의를 향상시키는 '파킹 어시스트'와 동승석 전동 시트 및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등 안락함을 더해주는 '컴포트 플러스' 옵션을 통합했다.

현대차는 1주년 기념 패키지 I·II의 가격을 각각 기존의 현대 스마트센스, 파킹 어시스트와 동일한 148만원, 168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차는 2024 아이오닉 6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을 고객 최선호 사양으로 재구성하면서 판매 가격은 70만원 내려 구매 부담을 낮췄다. 이외 트림은 선호 사양 기본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후 기준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200만원이다. 롱레인지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5605만원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5775만원 ▲프레스티지 6135만원 ▲E-LITE 5260만원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현대차 '아트카'로 부산엑스포 알린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엑스포를 감성적으로 알리기 위해 K-컬처 아티스트와 협업한 아트카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 뉴델리 곳곳을 누비며 부산을 알렸다.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아이오닉 5)이 인도 뉴델리 주요 명소인 '쿠트브 미나르' 부근을 순회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벤츠코리아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티켓 오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2023 하반기 티켓 판매를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을 통해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독일 메르세데스-AMG 본사에서 개발한 높은 수준의 운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10월 국내 도입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1일 27일까지 진행된다. 입문자를 위한 'AMG 익스피리언스'부터 'AMG 퍼포먼스', 'AMG GT 익스피리언스', 'AMG 어드밴스드' 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총 8번 진행된다.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패밀리' 프로그램도 선택 사항으로 제공된다.

각 프로그램을 통해 메르세데스-AMG GT를 비롯한 레이싱 DNA를 품은 내연기관 AMG 차량, 도 벤츠의 고성능 순수전기차 AMG EQ 등도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티켓 판매 서비스를 개시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고객들이 티켓을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관을 검색하면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에게 선물하기' 또는 '선물하기'를 이용해 손쉽게 구매 및 선물이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티켓을 구입한 참가자들에게는 행사 일주일 전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웰컴 패키지가 발송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

금호타이어 '그린 캠페이너' 활동

미래세대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금호타이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린 캠페이너' 활동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캠페인 공모 및 시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사회 가치를 전파한다는 게 목적이다.

또 아동들이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전개해 참여도를 높이고, 실천성을 강화한다. 이외 다양한 환경 이슈에도 확장해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12개 초등학교 52개 학급에 재학중인 137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토론, 실습과 같은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과 캠페인 활동 등 참여 유도형 활동을 함께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교육내용 이해도를 높였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교육기부 우수기업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의 공부방' 사업, 산타원정대 활동,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